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65호 [루계 제25939호] 주제 107 (2018)년 3월 6일 (화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남조선 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3월 5일 평양에 온
남조선 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
들을 접견하시였다.

문재인대통령의
특사인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
실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 원
장, 천해성 통일
부 차관, 김상근
국가정보원 차
장, 윤건영 청와
대 국정상황실
실장이 참가하였다.



남측 특사로부터
수뇌상봉과 관련한
문재인대통령의
뜻을 전해들으시고
의견을 교환하시였
으며 만족한 힘의
를 보시였다.

최고령도자동지
께서는 해당 부문
에서 이와 관련한
실무적 조치들을
속히 취할데 대한
강령적인 지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는 또한 조선반도
의 침에 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대화
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문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전달하였다.

김영철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동지가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특사와 일행의 손을 일일이 뜨겁게
잡아주시며 그들의 평양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이 문재인대통령의 친서를 정중히
전달하였다.

특사대표단 성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제23차 겨울철을 릴

작정기대회를 계기로 고위급대표단을
비롯하여 규모가 큰 여러 대표단들을
파견하여 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시하시고 한피흘을

나눈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도와주는 것은 응당한 일이

라고 하시면서 이번 겨울철을 릴 때 경

기대회가 우리 민족의 기개와 위상을
내외에 과시하고 북과 남사이에 화해
와 단합,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마련해
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계기로 되었

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남측 특사대표단 일행과 북남관계를

직극적으로 개선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한 회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란듯이 북남관계를 활력 있게 전진
시키고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

자는 것이 우리의 일관하고 원칙적인

립장이며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거듭 전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들에 대하여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문재인
대통령 특사대표단 사이의 담화는 통포
애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

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특사대표

단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

었다.

본사정지보도반



금속공업부문이 혁명적인 총공세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자

불 가능을 모르는 자력갱생의 강자들

김

책 제 철련합 기업 소 일 군 들

파 르 동 자, 기 술 자 들 의 투 쟁

청의 도시 김천이 부글부글
끓고있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철강재생산이 가장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김책제
철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주체생산을 위한
결사의 투쟁을 벌리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산소열법용
광로에서 우리의 원료, 연료에
의지하여 철 쇠물을 성과적으로
풀어놓았을 때로부터 40여 일동안
당정책검사관들의 정신을 발휘
하며 현대 선형생산실적을 끌어
올리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의 부를이라면 한마음
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뚫
기고, 바다도 빼우는 기적을
풀지없이 창조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뿌듯한 전통이며 기
질입니다.

첫 쇠물을 뽑은 때로부터 40
여일, 하루하루의 일분일초가
그대로 치열한 격전의 현속이었
던 그 날은 쇠물을 키워 김철로
동계급이 뚫고해온 난관은
온 그 얼마였던가.

보통 때 같으면 로운방법을
파악하자고만 해도 충분한 기임
이 아니었다.

하지만 김철로동계급은 당시
안전준강인단과 함께 담력을
로 부터는 애로와 난관을 맞았
아 놓고나가며 주체적인 선형생산
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강철로 당을 보위하자!

끌장을 불 때까지 완강하게

부령합금 철공장에서

할수 없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자.

최근간 여러 가지 합금철을
개발한 공장에서는 경제적의의
가 큰 새로운 합금철개발에 또
다시 성공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합금철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100% 우리
의 자원에 의지하고 있으며 합
금철의 품위 또한 매우 높은 것
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한 투쟁에서 자강제철제일주
의원을 험하게나라』라며 험하게
나라를 험하게나라야 합니다.

새로운 합금철개발을 시작할
때 있은 일이다.

우리 나라의 자원에 의지하여
합금철생산의 주체화를 실현하
자고보니 걸린 문제는 한두가지
가 아니었다. 특히 합금철생산
에 들어가는 주원료중의 하나는
우리 나라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많은 사
람들이 주저하였지만 일군들의
립장을 확고했다.

박봉주동지 주동지

함경북도안의 금속공업부문 사업 현지로해

[평양 3월 5일]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
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
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는 함경북도인의 금
속공업부문 사업을 현지로해

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세시하신
전투적파업을 높이 달
들고 김책제철련합기
업소와 무산광산련합
기업소, 청진제강소,
부령합금철공장의 일
군들과 로동계급은 더
많은 철강제, 철강생
산으로 당을 놓아놓았
고 있다.

박봉주동지는 도안
의 금속공업부문 어려
단위를 돌아보면서 사
회주의 강국건설의 뜻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

회,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내각은 주제 106(2017)

년도 인민경제계획을 가장 모범적

으로 수행한 다음의 풍광, 기업소

들이 공동순위우승기와 표창장을

수여한 후에 철련합기업

소, 박봉주동지, 청진제강

소, 서수수발전소, 태안발전

소, 허진강발전소, 순천화력발전

소, 위원발전소, 황성남송배전

소, 대동강발전소, 신한상

상발전소, 신한상송배전

소, 신한상송배전, 신한상송

송배전, 신한상송배전, 신한상송

201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위들에 공동순회우승기 수여

기술준비소, 평양제철공장, 평양

제철소, 하찌복공장, 해상운송

기기제작소, 청진제철공장, 대

동강제철공장, 청진제철공장,

청진제철공장, 청진제철공장,

</div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쟁으로 끓는다

면밀하게 작전하고 과감하게 실천하여

농업성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본격적으로 내밀어 봉기 기간에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6.0~7.0% 수준에 올려세울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공화국 창건 일흔돐을 맞는 봄길은 올해에 농업성의 농기계부문 일군들이 세운 계획은 아름다웠다.

앞선 영농방법에 맞게 수만 대의 모내는 기계를 효과적으로 개조, 통력제초기와 각종 분무기들, 알비료상형기와 비료는 주는 기계 그리고 능률높은 이동식 탈곡기들을 대량적으로 제작리용···

이 모든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 높은 수준에 올려세울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군들도 하여금 농산작업의 기계화실현에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의 맡고있는 임무를 더욱 깊이 자각하게 해주었다.

정선국장과 쇠인수부국장을 비롯한 능력성의 농기계부문 일군들은 단도리를 단단히 하고 멀리 헤아리는 모투를 더니 헌신을 도입되고 있는 여러가지 앞선 영농방법들로 기계화가 안방침될 때 더욱 큰 응을 냈다.

이러한 일들은 일군들도 하여금 농산작업의 기계화실현에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의 맡고있는 임무를 더욱 깊이 자각하게 해주었다.

기관에 따라 일봉세가 달라진다. 할수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반드시 집행해야 할 당정책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고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나갈 때 대한 당의 뜻을 빠져깊이 새긴 일군들은 이 사업의 돌파구를 전국의 기계화농민들의 정신력을 높이기 위한 관점과 확고한 힘장에서 대단하게 작전하고 실천에 옮기었다.

전국의 농기계부문 일군들은 대상으로 한 화상회의가 그 중의 한 실례이다. 이 회의는 움직임과 능률로 일군들의 경험은 영농농장들의 기계화를 실현할 때 시기성은 물론 각업의 질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

할수 있으며 이것이 그대로 알

길이 보여주고 있었다.

알기증수율을 높고 분석해 본 결과 역시 쇠자와 비료, 판계통에 비하여 농기계로 제일 크다는 것이 명명되었다.

또한 최근년간 당시 높이 높이 빛들고 파학농사일 풍속에 널리 도입되고 있는 여러가지 앞선 영농방법들도 기계화가 안방침될 때 더욱 큰 응을 냈다.

물론 봄 기간에 그 많은 농기계들을 제작한다는 것은 기회치 않은 문제였다. 전기와 자재, 생산능력과 기술경험 등 부족한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고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나갈 때 대한 당의 뜻을 빠져깊이 새긴 일군들은 이 사업의 돌파구를 전

국의 기계화농민들의 정신력을 높이기 위한 관점과 확고한 힘장에서 대단하게 작전하고 실천에 옮기었다.

기관에 따라 일봉세가 달라진다. 할수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반드시 집행해야 할 당정책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고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나갈 때 대한 당의 뜻을 빠져깊이 새긴 일군들은 이 사업의 돌파구를 전

국의 기계화농민들의 정신력을 높이기 위한 관점과 확고한 힘장에서 대단하게 작전하고 실천에 옮기었다.

이제는 일군들은 일군들은

제작과 시장에서

제작

나는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바쳤는가, 언제나 이 물음앞에 떳떳하게 살자

불굴의 정신력으로 위훈떨치며

승호리 세멘트 공장 백색직장로동계급

누구나 놀라움과 경탄을 금지 못하고 있다.

단 두달동안에 한해생산량과 맞먹는 백색세멘트를 생산!

승호리세멘트봉장 백색직장에서 이특한 이 자랑스러운 성과는 어디에 뿐미를 두고 있는 것인가.

결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불리한 환경에서의 힘겨운 전투였다. 하지만 당시 준임무를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수행해야 한다는 두절한 각오와 불굴의 정신력을 지니고 이곳 일군들과 함께 급은 헌마운동 뜻이 되여 날과 날을 기적과 훈으로 수놓아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의 만리마전군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날길없이 폭발시켜야 합니다.』

지난 1월 때 맥직장앞에는 어느 한 중요한 대상건설장에 보내온 세멘트를 두달동안에 생산해 왔다. 당시 준업무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수행하는 것을 체

정화한 로동계급의 기습속에 결사판무의 의지가 용암처럼 끓어왔다.

세멘트생산전투가 힘 있게 벌어졌다. 현장에는 「동무는 오는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글발령에 작성반별 생산실적이 수자들로 기록되었었다. 작성반 일군들은 뿐만 아니라 동자들은 의해 이 글발령과 수

방도를 모색하며 현장을 돌아

보던 직장장 박정남동무의 퀴친에 이런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그리니 준비작업이 끝난 다음 생산을 진행하면 이전방식과 달리 준비작업과 생산을 동시에 내밀지는 거구만.』

『제동률 사이의 핵동을 더 치밀하게 짜고들면 거기서도 상당한 증산비가 나올겁니다.』

박정남동무는 로동자들이 일면 토론을 진행하는 뜻으로 다가왔다.

『이젠 끌렸소. 이어서 내 우리 직장동무들이 제일이라는거요.』

자기들과 무릎을 마주하며 느닷없이 민지는 직장장의 말뜻을 알아차린 로동자들의 얼굴에 느

순한 미소가 떠올랐다. 로동계

급의 눈길들이 마주치며 마음속에서 절절한 목소리들이 울리

었으며 심장들이 세차게 뛰어

었다. 당시 준업무는 일면 토론자도 있었다. 제

일 어려고 중요한 초소에서 청

총의 자유로워 깊이게 새기고 싶다

며 소성으로부터 차원한 청년동

원과 맹활약을 했고 대체로

제기로 한 번에 한교대를

통과했다. 박정남동무는 끄트

며 먹여놓았다.

『동무는 오는 조국을 위해

작업반에 일군들을 품고

로동자들은 의해 이 글발령과 수

방도를 일별하며 마음속인들에

물 더운 조여대군하였다.

공장서 회식 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고지에 반역

을 보장하는 실정으로 질 좋은

식회식을 보장하기 위해 편일

혁신적 성과들을 이룩했다.

로동자들의 생산일의 기님을

따라 더욱 고조되는 기운에 아

름다운 미답들이 꽂혀났다. 계

울철조건에 맞게 행각수를 끌어

오기 위한 쟁력을 자각적으로

진행한 1작업반의 노동자들이

가는 하면 신입 봉이지만 젊은

기간에 원료배합에 용기와

대기로 헌대를 자진하고

맡아나선 노동자도 있었다. 제

일 어려고 중요한 초소에서 청

총의 자유로워 깊이게 새기고 싶다

며 소성으로부터 차원한 청년

원과 맹활약을 했고 대체로

제기로 한 번에 한교대를

통과했다. 박정남동무는 끄트

며 먹여놓았다.

『동무는 오는 조국을 위해

작업반에 일군들을 품고

로동자들은 의해 이 글발령과 수

방도를 일별하며 마음속인들에

물 더운 조여대군하였다.

『동무는 오는 조국을 위해

작업반에 일군들을 품고

로동자들은 의해 이 글발령과 수

방도를 일별하며 마음속인들에

물 더운 조여대군하였다.

『동무는 오는 조국을 위해

작업반에 일군들을 품고

로동자들은 의해 이 글발령과 수

방도를 일별하며 마음속인들에

물 더운 조여대군하였다.

『동무는 오는 조국을 위해

작업반에 일군들을 품고

로동자들은 의해 이 글발령과 수

방도를 일별하며 마음속인들에

물 더운 조여대군하였다.

『동무는 오는 조국을 위해

작업반에 일군들을 품고

로동자들은 의해 이 글발령과 수

방도를 일별하며 마음속인들에

물 더운 조여대군하였다.

『동무는 오는 조국을 위해

작업반에 일군들을 품고

로동자들은 의해 이 글발령과 수

방도를 일별하며 마음속인들에

물 더운 조여대군하였다.

『동무는 오는 조국을 위해

작업반에 일군들을 품고

로동자들은 의해 이 글발령과 수

방도를 일별하며 마음속인들에

물 더운 조여대군하였다.

『동무는 오는 조국을 위해

작업반에 일군들을 품고

로동자들은 의해 이 글발령과 수

방도를 일별하며 마음속인들에

물 더운 조여대군하였다.

『동무는 오는 조국을 위해

작업반에 일군들을 품고

로동자들은 의해 이 글발령과 수

방도를 일별하며 마음속인들에

물 더운 조여대군하였다.

『동무는 오는 조국을 위해

작업반에 일군들을 품고

로동자들은 의해 이 글발령과 수

방도를 일별하며 마음속인들에

물 더운 조여대군하였다.

『동무는 오는 조국을 위해

작업반에 일군들을 품고

로동자들은 의해 이 글발령과 수

방도를 일별하며 마음속인들에

물 더운 조여대군하였다.

『동무는 오는 조국을 위해

작업반에 일군들을 품고

로동자들은 의해 이 글발령과 수

방도를 일별하며 마음속인들에

물 더운 조여대군하였다.

『동무는 오는 조국을 위해

작업반에 일군들을 품고

로동자들은 의해 이 글발령과 수

방도를 일별하며 마음속인들에

물 더운 조여대군하였다.

『동무는 오는 조국을 위해

작업반에 일군들을 품고

로동자들은 의해 이 글발령과 수

방도를 일별하며 마음속인들에

물 더운 조여대군하였다.

『동무는 오는 조국을 위해

작업반에 일군들을 품고

로동자들은 의해 이 글발령과 수

방도를 일별하며 마음속인들에

물 더운 조여대군하였다.

『동무는 오는 조국을 위해

작업반에 일군들을 품고

로동자들은 의해 이 글발령과 수

방도를 일별하며 마음속인들에

물 더운 조여대군하였다.

『동무는 오는 조국을 위해

작업반에 일군들을 품고

로동자들은 의해 이 글발령과 수

방도를 일별하며 마음속인들에

물 더운 조여대군하였다.

『동무는 오는 조국을 위해

작업반에 일군들을 품고

로동자들은 의해 이 글발령과 수

방도를 일별하며 마음속인들에

물 더운 조여대군하였다.

『동무는 오는 조국을 위해

작업반에 일군들을 품고

로동자들은 의해 이 글발령과 수

방도를 일별하며 마음속인들에

물 더운 조여대군하였다.

『동무는 오는 조국을 위해

작업반에 일군들을 품고

로동자들은 의해 이 글발령과 수

방도를 일별하며 마음속인들에

물 더운 조여대군하였다.

『동무는 오는 조국을 위해

작업반에 일군들을 품고

